

# 전북 가슴기 살균제 사망자 '20명'

가슴기 살균제에 포함된 유해물질로 인한 사망자가 전북지역에서 2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환경보건시민센터 등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공동 발표한 '전북 가슴기 살균제 피해조사 및 신고접수 현황'에 따르면 지난 7월까지 도내에서 총 121명이 피해 신고를 접수했으며 이 중 사망자는 20명이다.

연도별로는 1·2차 조사

## 시민·사회단체 공동 발표... 군산 5명 가장 많아

(2011~2014) 기간에 2명의 사망신고가 접수됐고 3차 조사(2015) 기간 중 3명이 추가로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4차 조사가 시작된 지난 4월25일부터 총 15명의 사망신고가 추가로 접수돼 전북에서만 가슴기 살균제에

포함된 유해물질로 사망자가 총 20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군산이 5명으로 가장 많고 전주 4명, 익산 3명, 김제·남원·고창 2명, 정읍 1명 등이었다.

단체들은 조사가 진행 될수록 피해 신고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사망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내다봤다.

단체 관계자는 "현재까지 접수된 피해자는 전체 1%도 되지 않는 빙산의 일각으로 추정된다"며 "정부와 지자체도 피해신고를 가만히 앉아 기다리지 말고 병원 내원자에 대한 피해 전수조사 등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 주택가 강도행각 30대 구속

추석연휴에 주택가에서 상습적으로 강도행각을 벌인 30대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덕진경찰서는 19일 주택가를 돌며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 등)로 A(35)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추석 연휴인 지난 16일 오후 11시50분께 전주시 금암동 한 버스정류장 앞에서 B(23·여)씨를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다음날 오전 1시께 전주시 덕진동 B(60)씨의 집에 침입해 현금 10만원이 들어있는 가방을 훔치고, 인근 C(76·여)씨의 집에도 침입해 C씨를 흉기로 위협해 현금 23만원을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다. /김영재 기자



익산시 함열읍 학선마을에 태양광발전시설이 들어설 움직임이 보이자 19일 마을 주민들이 반발하며 익산시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있다.

# 전주시, 글로벌도시 성장 기반 갖춘다

## '글로벌도시 협의체' 회의 개최 관광·문화 등 논의 지속키로

전주시가 미국의 뉴욕, 일본의 도쿄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세계적인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고 나섰다.

시는 19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전주시의 글로벌도시 추진과제에 대한 전반적인 시책을 논의하고, 국제교류와 해외홍보 관련 사항을 자문하는 글로벌 네트워크·자문기구인 '전주 글로벌도시를 위한 협의체' (이하 글로벌도시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글로벌도시 협의체는 전주시가 외국 도시들과 단순한 행정간 교류와 형식적인 MOU체결 위주로 추진돼온 그간의 국제교류방식에서 방향을 전환해

전주라는 도시의 자체의 경쟁력과 네임밸류 강화를 통해 뉴욕, 도쿄, 홍콩과 같은 세계적인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각 대륙별·분야별 위원 15명으로 구성·운영된다.

이날 회의에서 협의체 위원들은 기존의 전주 관광과 문화, 산업뿐만 아니라 논의 분야를 점차 확대해 전주시의 글로벌도시 추진을 위해 체계적인 논의를 광범위하게 지속키로 했다. 또, 사안에 따라서는 각 분야별·지역별 소규모 회의도 개최하기로 했다.

올 한해 전주는 언론매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외국에 소개되고, 공식 해외사절단의 방문과 다양한 해외 기관·단체와의 협력관계 구축 등이 이어지면서 그 어느 해보다 국제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실제, 전주는 지난 7월 세계적인 여

행잡지인 톤리플래닛이 선정한 '아시아에서 꼭 가봐야 할 곳' 3위에 선정됐으며, 최근 영국의 대표적인 공영방송사인 BBC가 전주음식을 취재해가는 등 외신의 관심을 받고 있다.

또한 올해 영국과 프랑스, 뉴질랜드 등 주요국가의 대사 등 외교사절이 전주를 공식 방문해 전주의 국제교류 확대를 희망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시는 이클레이(ICLEI: International Council for Local Environmental Initiatives, 지속가능성을 위한 세계지방정부)와 국내 최초로 에너지 안전도시 협약을 체결했으며, UCLG-ASPAC(UCLG-ASPAC: United Cities and Local Governments-Asia Pacific Region) 총회에 참가해 홍보부스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국제기구 등과 튼튼한 협력관계를 구축했다.

/김영재 기자

# 생활속 규제 걸림돌 시민 아이디어로 해결한다

## 시, 30일까지 공모 접수

전주시가 각종 규제로 인해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을 없애기 위한 '생활속 규제 개선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하고 있다.

전주시는 오는 30일까지 '생활속 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한 시민 아이디어 공모'를 접수받는다. 19일 밝혔다.

이는 건축, 국토 등 경제 분야 규제 개혁으로 기업인의 만족도는 향상된 반면에 시민이 피부로 느끼는 규제개혁 체감도가 낮아져 따른 것이다.

시는 이에 따라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 개선과제까지 개혁 범위를 확대해 시민들의 체감도를 높여겠다는 방침이다.

시민 공모전은 전주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개선과제 주요 발굴 분야는 ▲출생·육아·청년취업 등 생애주기별 과제 ▲교통·자동차·의료복지 등 생활환경불편 과제 ▲참여활성화를 저해하는 소상공인·창업 규제 등 대민행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생활불편 과제이다.

제출된 과제에 대해서는 심사를 통해 총 10명(최우수 1명, 우수 3명, 장려 6명)에게 상장 및 부상을 수여할 계획이다.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은 9월 30일까지 전주시 홈페이지 '생활속 규제 공모전' 창에 온라인 접수 가능하며, 우편, 이메일, 팩스와 더불어 기획예산과로 직접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선정결과는 10월중 발표할 예정이며, 발굴된 과제는 시청 담당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과제유형에 따라 중앙부처에 건의하거나 자체 개선할 예정이다.

최현창 전주시 기획예산과장은 "이번 공모는 실생활 속에서 시민이 불편과 부담을 느끼는 규제 개선과제를 적극 발굴해 시민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시민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열린 사고로 다양한 분야의 규제개혁 개선과제가 발굴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생활속 규제 개선은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김영재 기자

##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의 전주 참가자 다음달 7일까지 접수

전주시가 오는 10월 13일과 14일 이틀간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열리는 제2회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의 전주 참가자를 모집한다.

'지역의 미래, 지역화'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는 세계적인 지역화 운동단체인 Local futures(국제생태문화협회)와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와 공동으로 개최하며, '행복의 경제학'의 저자인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Helena Norberg Hodge) 대표를 비롯한 국내·외 전문가 30여명이 참가해 글로벌 경제에 따른 문제와 이에 대한 해법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국제회의에는 지역의 학계, 지자체 사례, 사회적 경제 현장전문가들이 모여 전주시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토론의 장도 펼친다.

국제회의의 참가를 원하는 시민은 오는 10월 7일까지 전주시 홈페이지(www.jonju.go.kr)를 통해 사전등록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사회적경제지원과(063-281-2257)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재 기자

## "새만금 매립공사로 저어새 쫓겨날 위기"

### 전북녹색연합 성명서 발표

급속한 개채수 감소로 멸종위기 1급으로 지정된 저어새가 새만금 매립공사로 서식지를 잃을 위기에 처했다는 환경단체의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녹색연합은 19일 성명서를 통해 "국제적으로 중요한 멸종위기 1급 조류인 저어새가 새만금 산업단지 3공구 매립공사로 서식지를 잃을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녹색연합은 "전 세계에서 저어새가 가장 많이 서식하는 곳은 한강 하구와 황해도, 그리고 새만금 지역"이라면서 "새만금에서 많은 저어새가 관찰되는 것은 수심이 얕고 치어가 모여드는 갯벌이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곳이기 때문이다"고 분석했다.

또 "새만금으로 흘러드는 만경강과 동진강의 넓은 갯벌을 찾는 저어새들은 불과 10년 전만 해도 강 유역에 넓은 서식 형태를 보였다"며 "그러나 지난 2013년부터 본격적인 방수제 공사와 매립이 진행되면서 기존 서식지가 사라지고 좁은 지역에 무리가 밀집된 형태로 바뀌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저어새가 찾아오는 곳은 새만금의 핵심 공사지역으로 정부가

나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더 이상 개채군을 유지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며 "새만금 내의 저어새 서식지를 보존하지 못할 경우 생태계 안정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녹색연합은 멸종위기 1급 조류인 저어새 새만금에 서식하는 다양한 생물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매립을 중단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재실시 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녹색연합 관계자는 "새만금은 저어새는 물론이고 10여종의 다양한 멸종위기 조류가 서식하고 있는 곳"이라면서 "정부는 새만금 산업단지 3공구의 매립을 즉각 중단하고 한반도를 대표하는 멸종위기종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과 중국, 홍콩, 대만 등에서 관찰되는 저어새는 최근 급속한 개채수 감소로 국내에서 환경부 멸종위기 1급과 천연기념물 205-1호로 지정됐으며, 세계자연보전연맹 적색자료 목록에 위기(EN)종으로 등재된 보호종이다. /뉴시스

전주매일 www.jjmaeil.com

Hello, Modern  
군산시간여행축제

근대, 추억을 만나다

# 군산시간여행 축제

2016.9.30 Fri ▶ 10.2 Sun

군산근대역사박물관 및 월명동 일원

군산시 GUNSAN CITY 시간여행문의 관광진흥과 T. 063)454-3343 festival.gunsan.go.kr

\*시간여행 드레스코드(교복·양장 등에 맞는 복장으로 행사장 방문 시 기념품을 드립니다.)